

장흥군 발효차 청태전으로 음식문화 개선

지역음식점 10곳서 제공
발효차 6차 산업화도 총력
명품화 위한 품질 평가회
명차 육성 홍보·마케팅 나서



? 청태전(靑苔錢) 삼국시대부터 근세까지 장흥지방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발효차로 찻잎을 틀에 박아내어 만든 덩어리차로 그 모양이 동전과 비슷해 돈차나 전차라 불리기도 했다. 발효과정에서 파란색의 이끼가 낀 것처럼 변한다고 해 청태전이라고 불린다.

장흥군이 지역 음식점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에게 전통발효차 '청태전'(사진)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청태전을 바탕으로 한 음식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다.

25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군보건소는 최근 '온(溫)+음식문화개선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지역 10개 음식점에서 청태전 차 제공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올해 지역 이미지에 맞는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향토음식의 맛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장흥에서만 생산되는 전통발효차 청태전을 손님에게 선보임으로써 따뜻한 장흥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또 장흥 청태전 홍보와 마케팅의 계기로 삼아 청태전 생산 농가의 소득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군은 이에 앞서 전통 발효차인 청태전의 역사를 계승하고 산업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군은 '2017 세계명차품평대회' 발효차

부분 우수상과 '제11회 광주국제차문화 전시회' 떡차부분 특별상 등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원광디지털대학교와 손잡고 전통차 활성화와 전문가 육성에 나서 성과를 내고 있다.

군농업기술센터 역시 '전년 전통 청태전 등 발효산업 6차 산업 개발사업'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청태전을 기본으로 응용 상품 활용과 고객서비스, 문화관광체험, 발효

차 티파티플랜 및 실습 등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됐다.

군은 이와함께 지난해 4월 청태전의 명품화를 위한 품질 평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품평회에는 청태전차연구회와 관련농업인, 심사위원을 비롯한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군은 앞으로 매년 품질 평가회를 개최해 고품질 명차 생산의 동기부여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세계적인 발효차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우리군의 음식점에서 장흥의 자랑 청태전을 제공해 장흥을 찾는 관광객과 음식점 손님에게 남도음식의 후한 인심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정충=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영암군 전직원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영암군은 지난 20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과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교육은 최근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실상 고발로 '미투운동'이 전 영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건전한 성(性)문화와 양성평등문화 실현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과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주제별로 1시간씩 총 4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올바른 성문화와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사례위주의 설명이 곁들여져 호응을 얻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간 배려와 존중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성희롱 없는 건강한 일터 만들기와 더불어 폭력 없는 안전한 영암 만들기에 앞으로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기자 jbh@

영암군 여성자치대학 입학식

12월까지 목포대 위탁 운영

영암군 여성자치대학(학장 영암군수)이 지난 21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입학식 및 기관사회단체장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개최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27주 108시간 운영되는 여성자치대학은 2년제 과정으로 제1기 2년차 과정 56명과 제2기 1년차 과정 59명의 교육생을 목포대학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여성리더로서의 소양과 자질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지도자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과정별로 주 1회 2시간씩 운영된다.

한편 영암군 여성자치대학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21세기 지식기반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유능한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으로 2007년도에 개설됐다. 지금까지 1년차 과정 629명과 2년차 과정 48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문의 061-470-6751. /영암=전봉헌기자 jbh@

강진군 올 추경 역대 최대 650억 편성

강진군은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와 '2018 A로의 초대' 관광산업 성공을 위해 올해 첫 추경예산안 65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2016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3년 간 강진군의 1회 추경 예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363억원, 2017년 582억원, 2018년 650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본예산을 포함한 1회 추경 예산액은 2016년 3288억원, 2017년 3697억원, 2018년 3987억원으로 2017년

대비 290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안 증액은 강진원 강진군수와 공무원들이 국비와 도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했기에 가능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업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로 군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계획이다"며 "지방교부세가 늘어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는데 수월했다"고 말했다.

추경 예산안은 군의회 임시회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장흥군 4월까지 접수

장흥군은 오는 4월 말까지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접수 받는다.

장흥군은 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책자 2000부를 제작해 950여 해당 법인에게 발송했다.

이번 확정신고는 12월 결산법인의 2017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하여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두 곳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 제출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조정 방문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장흥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충=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이정현(오른쪽 두번째) 전남대 교수가 수국재배 시설하우스를 찾아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농업인 소득 배가 팔 걸었다

절화수국 15 농가 대상

양액재배 전문가 현장 교육

강진군이 올해 농정목표로 세운 농업인 소득 배가 달성을 위해 적극 나섰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군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꽃꽂이용 수국인 '절화수국'을 재배하는 농업인 15명을 대상으로 양액재배(도양을 이용하지 않는 재배 방법)에 대한 전문가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수국 생산과 출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고품질 절화수국 생산을 위한 사전 교육 차원이다. 농업현장의 당면 과제와 애로점을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했다.

시설환경제어 전문가인 전남대 식물생명공학부 이정현 교수가 강사로 나서 수국 재배를 위한 비료관리 요령을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지역 수국 재배 시설하우스를 찾아 수국재배의 시기별 온도와 햇

빛, 물 등 시설하우스 내 환경제어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이동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의 소득배가를 위해 추진한 이번 교육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수국 생육 시기별 추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농업인 소득 향상에 이바지 하겠다"며 "농업인들도 유통시장에서 요구하는 고품질 수국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나주, 2층주택, 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 급매 - ~~8200만원~~ → 6200만원
- (2018년 3월 31일까지)
- 문의. 010-3605-5000